

# 비트코인, '빅컷 상승분' 반납에도, 전문가 "상승여력 충분"

중동발 리스크에 6만달러까지 밀려 미국 고용지표 호조, 경기침체 완화 10월 중순이후 가격반등 가능성 강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후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중동 전쟁 위기감으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단기간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 전망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19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8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면서 6만달러까지 상승했다. 또한 향후 추가 인하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해 6만6000달러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빅컷 단행 후 10% 상승하면서 10월 업토버(Uptober)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업토버는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친 말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의 10월 중에서 2번(2014년, 2018

년)을 제외한 9번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0월 시작과 함께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트코인은 하락 전환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또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6만달러까지 밀려났다. '중동발 전쟁리스크'에 빅컷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업토버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상승을 여전히 전망하고 있다.

먼저 미국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개선된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 4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보다 25만4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5만명과 비교해 10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9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p 내린 4.1%로 집계됐고 시장 예상치(4.2%)를 밑돌았다. 미국 노동시장의 강한 고용지표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켜 경기연착륙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심리를 살아나게 한다. 강한 고용으로 11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금

리인하 가능성이 우세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 조정일 뿐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부터 10월 가격 추이를 분석해보면 10월 초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15일 이후로 가격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미국 대선 등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업토버'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1면 '의대생, 내년 복귀... '서' 계속

## 상출제한집단 채무보증 5695억... 전년비 35.4% 증가

공정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에코프로·신세계 채무보증 68.0% ↑ 2년간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247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입스왑(TRS)거래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이와 관련 상출제한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출제한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에코프로와 신세계 등 2개 상출제한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1792억원) 증가했다.

다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 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 채무보증 일부 해소돼 19.2%(302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

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다. TRS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원으로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됐기 때문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했다.

상출제한의 최근 5년간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제한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의사 국가시험 유연화 전공의 선발 시기 조정"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추진 계획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10. 12.(토) - 13(일)  
수비면 소재지(수비체육공원)

### 제3회

자연/의/보/약/을/내/몸/에

# 수비 능이버섯축제

능이·송이버섯 판매장터/ 먹거리장터/ 축하공연 등

**능이버섯이란?**  
호랑이 표피를 닮았다하여 흑호장이라 부르며, 독특한 향이 강해 송이보다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다. 능이버섯 달인 물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항암효과 및 면역력 강화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된다.

주최/주관 영양군 영양축제관광재단 후원 수비면 기관 및 자생단체